

■ 한국축구, FIFA 랭킹 왜 떨어졌나?

확바뀐 선정방식 '亞 저평가'

FIFA(국제축구연맹)의 새로운 랭킹 선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축구연맹이 지난 12일(한국시간) 발표한 7월 랭킹에서 한국은 총격의 56위를 기록했다. 지난 5월의 29위보다 무려 27계단이나 떨어졌다.

아프리카대륙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월드컵 못간 국가보다 더 낮게 랭크

6회 연속 월드컵본선 무대에 출전하고 2006독일월드컵에서는 프랑스, 스위스, 토고를 상대로 1승1무1패의 성적을 거둔 한국 축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평가다. 한국 축구가 56위로 판정된 것은 FIFA의 새로운 순위 선정 방식 때문. FIFA의 새로운 랭킹 선정법은 지난 4년간 치른 모든 A 매치(국가 대표 팀 간 경기)를 기준으로 경기 중요도와 상대 팀 실력, 대륙별 비중을 따진다. 4년 가운데서도 최근 1년간의 결과는 100% 반영하고 나머지 3년은 1년마다 각각 50%, 30%, 20%로 줄여서 적용한다.

또 월드컵 본선은 4.0, 대륙선수권대회 본선과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는 3.0, 월드컵 지역예선 경기는 2.5, 친선경기 1.0 등으로 가중치를 매긴다. 경기 결과는 승점제로 승리했을 때 3점, 무승부 1점, 패하면 0점이다. 여기에 상대 팀에 대한 가중치도 계산한다. 계산 방식은 '200-상대팀 랭킹/100'이라는 공식. 예를 들어 랭킹 30위팀과 맞붙었을 때 (200-30)/100으로, 가중치는 1.7이 된다. 대륙별 가중치도 계산하는데 최근 세 차례 월드컵에서 한 대륙이 다른 대륙 팀

들을 몇 번이나 이겼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륙별 가중치는 유럽축구연맹(UEFA)이 1.0으로 가장 높고 남아대륙이 0.98, 아시아대륙은 0.85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년간의 경기 결과를 100%, 그 이전해 결과를 50% 반영한다. 새로운 랭킹 선정 방식으로 계산된 세계 랭킹은 아시아대륙의 평가절하로 나타났다. 월드컵 직전 18위였던 일본이 49위, 이란은 23위에서 47위로 밀려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34위에서 81위로 급락했다. 반면 아프리카대륙의 평가는 올라갔다.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서 한국에 패한 토고가 48위로 기록됐다. 유럽대륙도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다. 한국과 경기를 치른 스위스가 30위에 랭크됐다. 새로운 랭킹 선정 방식이 상대팀별, 대륙별 가중치를 크게 적용했다지만 한국이 조별리그서 3전 전패한 토고보다 8단계나 낮고,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한 아시아권의 우즈베키스탄(50위)보다도 순위가 낮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동영·김성남씨 등 8명 '벨인퍼컴' 불링 예선통과

정동영(20·곡성군 옥과면), 김성남(여·43·순천시 조례동)씨가 광주일보사 후원 제3회 벨인퍼컴사장배 남·여불링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했다. 정동영씨는 지난 12일 순천불투탑불링장에서 열린 예선대회에서 4게임 합계 923점을 기록하며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여자부에서는 김성남씨가 784점을 기록,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이날 대회에는 30명이 참가해 남자부에서 2위 지경해(42·순천시 해룡면), 3위 유환국(42·순천시 해룡면), 4위 김병철(21·곡성군 옥과면)씨가 예선을 통과했고, 여자부에서는 2위 박숙희(44·순천시 연향동), 3위 강영경(23·곡성군 옥과면), 4위 정인숙(37·순천시 조례동)씨가 예선을 통과했다. 다음달 26일 준결승을 펼치게 될 이번 대회예선은 오는 16일 광주 하나불링장과 나주 ABC불링장에서 열리고, 29일 광양가야불링장에서 7월 마지막 예선전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설기현 경험 많아 여러 포지션 소화"

'레딩' 코렐 감독 밝혀

"설기현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다" 한국인 3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탄생한 '스나이퍼' 설기현(27)이 지난 12일 오후 치러진 입단식에서 레딩FC의 사령탑 스티브 코렐 감독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주전경쟁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코렐 감독은 지난 12일 설기현의 입단식에 맞춰 "설기현이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레딩과 경기를 치를 때 항상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며 "월드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 경기가 우리 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코렐 감독은 이어 "설기현은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만큼 설기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설기현은 골상황을 만들어내고 골을 넣는 능력 뿐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선수"라며 "레딩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호남대 '아마추어 돌풍'

미포조선 꺾고 8강행

FA컵 축구선수권

대학축구 강호 호남대가 프로·아마추어를 합해 국내 성인축구 정상을 가리는 FA컵에서 지난 해 준우승팀 울산 현대미포조선을 꺾고 8강에 올라 '아마추어 돌풍'을 이어갔다. 호남대는 지난 12일 울산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06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종료 직전 터진 김준범의 결승골로 미포조선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4월 대회 32강전에서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를 승부차기 끝에 꺾는 이번을 일으킨 호남대는 전반 17분 미포조선의 김영후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전반 23분 이성규가 동점골을 뽑고 후반 44분 김준범이 문전 혼전 중 흘러나온 볼을 오른발로 네티에 꽂아 '대어'를 낚았다. 전남 드래곤즈는 광양 홈 구장에서 후반 40분 김효유의 결승골로 부산 아이파크를 1-0으로 눌렀고 K-리그 신생팀 경남FC는

신병호와 김성길의 연속골로 김남우가 한 골을 만회한 N리그 인천 한국철도를 2-1로 제압, 각각 8강에 합류했다. 대구 FC는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중앙대와 16강전에서 '프로의 매운 맛'을 보여주며 6-0으로 대승해 8강에 합류했다. 대구는 지네이, 이상일, 김현수, 황연석, 장남석(2골)이 골 폭족을 터뜨려 32강전에서 K-리그 전반기 우승팀 성남 일화홀딩스를 잡고 올라온 중앙대의 돌풍을 잠재웠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전주 경기에서 지난해 FA컵 우승팀 전북 현대와 득점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겨 8강에 진출했다. N리그 강호 고양 국민은행은 K-리그 광주 상무와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김태영이 두 차례 선방을 펼친 수훈에 힘입어 4-1로 이겨 8강에 올랐다. 한편 이날 수원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수원 삼성-대전 시티즌, FC 서울-포항 스틸러스의 16강전은 우천으로 취소돼 다음 달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동진·이호 플타임 출전

'황금날개' 김동진(24)과 '아드보카트호 황태자' 이호(22·이상 제니트 샤프 페테르 부르크)가 러시아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디 아드보카트 전 한국축구대표팀 감독과 함께 제니트로 이적한 김동진과 이호는 13일(이하 한국시간) 2006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시즌 11차전 FC 모스크바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각각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제니트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동진과 이호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고 제니트는 FC 모스크바와 득점없이 비겼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지난 7일 데뷔전에서 디나모 모스크바와 0-0으로 비긴 데 이어 제니트 지휘봉을 잡고 치른 두 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제니트는 3승5무3패(승점 14)를 기록해 현재 16개팀 가운데 10위에 머물렀다. 리그 선두 CSK 모스크바는 하위권의 로스토브에 1-2로 달미를 잡혔으나 승점 22(7승1무3패)로 여전히 1위를 지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한은행 "먼저 1승"

13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06 여자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천안 국민은행 대 안산 신한은행의 1차전에서 국민은행 박주영(왼쪽)이 신한은행 디종의 수비를 피해 패스를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신한은행이 77-64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14일(금)
 - ▲메이저리그(오를랜드-보스턴) 07:55·Xports
 - ▲제28회 대붕기 교묘야구대회(12:00·KBS SKY SPORTS)
- 15일(토)
 -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 2R(05:00·SBS스포츠)

- ▲유도 국가대표선발전(14:00·KBS1)
- ▲프로야구(SK-한화) 18:30·KBS SKY SPORTS, <롯데-삼성> 18:50·SBS 스포츠, <두산-기아> 19:00·MBC ESPN
- 15일(토)
 -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 2R(05:00·SBS스포츠)

바람둥이 남편 덕에 6억 횡재한 아내 이야기!

이탈리아 유산 상속을 통해 6억을 횡재한 아내의 이야기. 남편이 바람둥이였지만 아내가 어떻게 6억을 얻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는...

문의: 060-700-3658

마시면 쏘~옥 빠지는 프랑스 커피

프랑스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세요. 프랑스 커피는 건강과 맛을 모두 잡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문의: 02-335-6801